

경제

글목상권이 무너진다

합리적 규제가 먼저다

“입점 허가제·영업시간 제한 절실”

중소규모 유통점은 지역상권의 뿌리이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지역업자들의 몰락은 소매상을 상대로 하는 도매상의 위축을 불러내고 이는 영세상인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상권 붕괴 우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형마트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마트가 하루 1시간만 영업시간을 단축해도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약 1조8천억원의 매출감소분이 발생한다. 이는 영세상인 점포 1만9천개의 매출과도 같다.

또 대형마트의 판매품목의 10%만 제한해도 26조2천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며 이는 영세상인들의 점포 2만3천430개를 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는 사업조정심의 권한을 비롯해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건축제한, 건축인·허가 번거 등이 있으나 이는 출점 지연 효과를 있을 뿐 근본적인 규제는 어렵다는 게 유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천100여개의 슈퍼마켓 회원을 둔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도 대기업의 공세에 맞서 회비를 얹고 서구 벽진동에 있는 물류센터를 개장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자체 진단이다. 슈퍼조합 김경남 상무이사는 “유통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개방하는 게 높다.”

대형마트 품목 10% 줄이면 영세점포 2만개 살려

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3년째 ‘낮잠’

했지만 운영비 부족 등으로 물류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소상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대기업의 ‘바잉 파워’(buying power·구매력)를 따라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적·행정적인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시장 경쟁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제 정의와 공존의 원칙 또한 지켜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시장을 과점할 경

우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좁아지는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면적에 따라 입점 허가제를 실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은 “유통법 개정안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WTO 규범의 기본 정신은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 확대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까지 위반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 물류유통경영학과 이충수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생계형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표는 시장경제논리로 볼 때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법적 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인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정부가 WTO와 한·미·FTA 협정의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을 내세우며 통상마찰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배 회장은 “유통법 개정안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WTO 규범의 기본 정신은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대기업의 지나친 시장 확대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까지 위반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 물류유통경영학과 이충수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과 생계형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표는 시장경제논리로 볼 때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법적 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인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10 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LG이노텍 전시관의 LED(발광 다이오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내외 광산업 ‘한눈에’

‘국제광산업전시회’ DJ센터 개막 ... 120개사 참여

국내외 광산업 분야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0 국제광산업전시회(International Photonics Exhibition 2010)’가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6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해 광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또 업체나 연구기관의 부스뿐 아니라 신기술세미나장, 호남선도산업 유

망상품관, 수출상담회장, 비즈니스센터 등도 함께 운영된다. 13~14일에는 ‘제9회 국제광기술컨퍼런스’도 개최돼 다양한 광산업 관련 신기술 논의가 이뤄진다.

국내업체로는 LG이노텍과 화우테크놀로지, 파인테크닉스 등 LED 주요 기업이 참가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LED와 융복합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LG이노텍은 ‘당신의 내일을 상상하라’를 테마로 전시회 부스를

꾸미고, LED 공정별 제품 및 LED램프, 전·후방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 각종 응용제품을 전시한다.

국내 최대 광 관련 종합전시회로 자리매김한 국제광산업전시회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광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올해는 좀더 내실있는 전시회가 되기 위해 준비했다”며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광주의 광산업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소육성 자금 활용도 높지만

무리한 담보요구 등 개선 필요”

광주상의 제조업 100곳 조사

광주시에 운용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 만족도는 높지만 무리한 담보요구 등 지원체

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3일 지역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2%가 최근

CT&T-中 에너지사, 전기차 합작법인 설립 MOU

전기차 전문기업 CT&T(씨티엔티)는 13일 중국의 톱상(通江)에너지그룹과 전기차 합작법인인 ‘씨티엔티 톱상’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합작법인 ‘씨티엔티톱상’은 CT&T가 출시 예정인 전기버스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조만간 중국에 버스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CT&T와 톱상에너지그룹이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합작법인의 지분을 갖기로 했으며, 법인 설립 후 총 10억 위안(약 1천6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국 전역 및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공장과 판매망을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세부내용을 확정해 오는 5월 중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710.59 (+0.29) 코스닥지수 506.53 (-1.14) 금리 (국고채 3년) 3.83% (-0.02) 원·달러 환율 1,123.90원 (+9.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삼성전자, 올 세탁기 800만대 판매

‘버블 에코’ 11종 출시 ... “3년내 글로벌 시장 1위”

삼성전자가 13일 세계적 침투력을 높여 세탁력을 향상시킨 ‘버블 에코’ 세탁기(사진) 11종을 출시했다. 이날 출시된 세탁기들은 세탁력을 높이는 버블의 발생량을 기존 제품보다 2배 늘린 ‘파워 버블엔진’을 탑재하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세탁시간과 전기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게 특징이다.

또 물없이 고온의 공기로 99.9% 살균할 수 있는 ‘에어 살균’ 기능과 옷감의 냄새를 제거하는 ‘에어 탈취’ 기능이 채택됐고 대형 제품에는 이불의 먼지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이불 털기’가 추가됐다. 건조기능도 세분

화해 ‘셔츠 한 벌 코스’, ‘소량 건조 코스’가 추가돼 적은 세탁물을 빠르게 말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산복이나 스키복 같은 아웃도어 의류를 세탁해도 방수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버블 스포츠 코스’ 기능이 추가됐다.

‘버블 에코’는 13kg와 16kg, 17kg 용량 등 모두 11개 모델이며 출고가는 109만~154만원이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라매케팅팀장 박재승 전무는 이날 발표회에서 “고객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해 다양한 의류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똑똑한 세탁기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며 “지



난해 600만대 납치 판매한 데 이어 올해는 800만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포스코 영업이익

1분기 3배 급증

포스코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포스코는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지난 1분기 조강생산량 823만, 매출액 6조9천500억원, 영업이익 1조4천47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1조4천370억원이다.

영업이익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287.9%가 증가했고, 순이익도 342.2%나 뛰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다. 조강생산과 제품판매량 역시 동기 대비 각각 33.9%, 25.5% 증가했다. /연혜수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Table with 4 columns: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Rows include land parcels for sale in various areas.

건물매매

Table with 4 columns: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Rows include buildings for sale or lease.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고, 편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List of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land parcels, commercial buildings, and residential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건물매매

- List of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mmercial buildings, residential properties, and land parcels for sale and lease.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location, area, and price.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수강생모집. 정원 50명(15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